

LOCAL

2025년 4월 9일 수요일

담양, 지역 활력찾는 생활인구 유입 정책 ‘통했다’

순천, 매실 가공 등 시범 운영
과수 농가 등 장비 무료 개방

순천시는 매실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농가도 직접 가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순천시 매실 가공·저장시설을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가공시설·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사용을 무료로 개방한다. 신청은 친환경농업과 방문 접수 또는 전자메일(dlekwls09@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공시설에서는 매실 원물을 세척·탈수하고, 씨를 분리하거나 절단하는 등의 기본 가공부터, 절임가·배합가·건조가·누름성형기 등을 활용한 매실 원액, 매실청, 건과일, 당절임, 과일잼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생산이 가능하며, 금속검출기와 포장기를 통해 위생적으로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저장시설에서는 매실 원물 및 가공품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수요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gwangnam.co.kr

하순, 다문화 모국 춤 페스티벌
19일 남산공원...화합의 장 기대

하순군은 19일 오후 3시 남산공원 축제장 주무대에서 ‘다문화 모국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多)양한 문화꽃을 잇다’를 주제로 결혼이민 여성들이 모국의 전통춤으로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필리핀의 ‘퀸덤’과 ‘판단고 사일라우’, 캄보디아의 ‘로밤 크라마’, 중국의 ‘상왕행 전통춤’, 베트남의 ‘반조이느억 전통춤’, 일본의 뮤지컬 ‘하순에서의 삶’ 등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하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지난해 3분기 42만4000명...등록 인구비 8.3배
고향사랑기부제 등 성과...내륙관광 1번지 매력

담양군은 2024년 3분기 평균 생활인구가 군 주민등록 인구의 8.3배에 달하는 42만4087명으로 나타났다.

8일 담양군에 따르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89개의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3/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체류인구 등록인구의 평균 8.3배로 전남도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 중 1

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분기에 이어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3분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4만4842명, 외국인 등록인구 1038명과 체류인구 37만8207명을 더한 42만408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류인구의 특징으로 특정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고 20세 미만부터 70세 이상까지 전 연령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내륙관광 1번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체류인구 중 체류지역의 시도와 등록지역 시도가 다른 타시도 거주자의 비중이 평균 85.8%로, 인구의 활발한 유입이 이뤄져 지역 활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5월 개원을 앞둔 국립정원문화원을 비롯해 군민생활체육공원, 반다비 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 확충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통한 야간관광공간 조성 등이 완료되면 생활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또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총 269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3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했으며, 내년도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도 발굴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을 비롯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77개 사업, 21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추진하고 있다.

2023년 시행 첫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전국 1위를 달성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인연을 맺은 다른 지역 관계인구의 지속적인 기부와 담양 방문을 유도하고자 한우, 방울토마토 등 지역특산품은 물론 담양온천 이용권, 텃밭 분양권 등 담

례품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경기가 살아나는 담양을 위해 생활인구 증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인구는 정주민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된 인구로,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체류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국내거소 신고자인 ‘등록인구’를 더한 것이다.

담양=조성훈 기자 jnwnews@gwangnam.co.kr

진도 관매도 ‘보배섬 유채꽃 축제’ 개최

11~13일 먹거리·체험 다양

진도군은 오는 11~13일 조도면 관매도에서 ‘보배섬 유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오메! 관매도에 봄이 왔어라’란 주제로 관매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의 정취와 함께 특별한 체험을 선사한다.

축제는 지난해 9개소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주무대를 관매도로 변경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만개한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 명당(포토존)과 관매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장터,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



시킨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련해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관매도의 아름다운 자연속에

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군은 축제 기간에 여객선을 증편 운행해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매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의 향기를 가득 담은 관매도에서 유채꽃과 함께하는 특별한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어린이날 해남서 공룡과 함께 놀아요”

군, 내달 3~5일 해남공룡대축제...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해남군은 다음달 3~5일 공룡박물관에서 ‘해남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룡 시간여행’으로, 공룡의 세계로 떠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들이 공룡의 세계를 직접 만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대폭 확대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는 축제

로 구성했다.

우선 어린이들이 공룡을 가까이서 보고, 만지며, 화석을 발굴하는 체험존을 조

성했다.

참가자들은 거대한 공룡의 세계를 실감하는 한편 직접 고고학자가 돼 화석을 발굴하거나 공룡모형을 조립하는 등 창의적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 공룡 발자국 탐험대가 돼 해설사와 함께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며 공룡의 생태에서 멸종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 담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축제의 주무대인 잔디광장에서는 공룡 버블 댄스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인기 캐릭터 ‘핑크퐁과 튠스퐁’의 댄스 파티공연부터 ‘캐지! 티니핑’과 함께하는

포토 이벤트 및 브레드이발소 캐릭터와 함께 노래하는 캐릭터 샐러움, 신나는 버블 댄스 타임을 비롯해 비눗방울쇼, 저글링쇼, 빅별쇼 등이 축제장을 달굴 예정이다.

저녁에는 박물관 곳곳이 야간 조명으로 물들며, 3~4일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룡가족 음악회와 아름다운 낙화놀이

가 펼쳐진다.

군은 축제 기간 동안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전문 안전요원이 상주해 각종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축제 기간 입장료는 무료이다.

축제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군 관광실 축제팀(061-530-5157~5158)으로 하면 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목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 다짐

범시민추진협·응원단 등 참석

목포시는 최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개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목포시 운영위원회, 범시민추진협의회, 시민응원단 등 600여명이 참석해 식전 축하공연, 추진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성공 기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운영위원회와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2023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최초 구성돼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3년간 대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민홍보, 손님맞이, 시민참여, 나눔봉사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

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구성된 700여명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시민응원단은 대회 기간 경기장에 방문해, 경기 관람과 열띤 응원을 통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시민응원단 대표 2인은 ‘목포시민이 다 함께 이루는 성공체전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주제로 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시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대회 준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렸다”며 “정성 어린 손님맞이를 통한 감동대축전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상의번호
220603-중-139779